

광주도철2호선 16년만에 종지부...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뉴스시스 선정 올해 광주·전남 10대 뉴스]

숨가쁘게 달려왔던 무술년 한해, 6·13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부가 재편되고 광주도철2호선 건설, 광주민간공항 무안공항 이전 등 굵직한 지역의 현안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유례없는 최장기간 폭염은 농수산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발생하면서 농어민을 신음케했고 '스콜미투'와 시한지유출로 인해 지역 교육계가 얼룩졌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추문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

◇6·13 지방선거 광주 與 '싸늘이', 전남 기초장 野 선전-무소속 돌풍

6·13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는 이변이 없었다. 전남은 아련의 선전세가 두드러졌다. 광주에서는 시장과 5개 구청장 모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물표로 압도했다. 전남은 22개 지역 중 8곳(36.4%)에서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앞서면서 여당이 예상 밖으로 고전했다. 광주에서는 광역, 기초의회도 민주당 돌풍 현상이 뚜렷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광주와 전남 모두 집권여에 광주에서는 3선 교육감이, 전남에서는 초선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광주 서구갈, 전남 영암·무안·신안 2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광주도철2호선 건설 '찬성'

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16년 간의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당초 예정대로 정상 추진되게 됐다.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14개월 합숙토론회 등 건설 찬·반 공론화 속의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찬성이 78.6%로 반대(21.4%)보다 월등히 높았다. 건설 반대 시민단체들이 시민참여단 속의조사를 공식 제안한 지 118일 만에 도출된 결론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분례도에 오르게 됐다. 16차례의 준비모임과 본회의 모두를 표결이 아닌 합의로 결정하고 합숙토론회 주요 과정과 결과발표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등 이번 공론화 작업은 민주성치를 자부하는 광주에 생활민주주의의 의미있는 또 하나의 씨앗을 뿌렸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좌초 위기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첫 번째 모델로 국내 정관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부지 사업이 최종 타결 일보 직전에서 급제동됐다. 대통령 참석 조인식이 하루 전날 저녁 취소된 것으로 D-1 취소는 지난 6월에 이어 반년 새 두 번째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지역 노사민정 이 지역 단위의 대타협을 일거위지만 최종 협상을 놓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사실상 5년간 유예하는 독소조항 삭제 문제를 놓고 현대차가 "수용할 수 없다. 손실이 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현대차 노조와 민노총의 반발마저 거세지면서 전체 협상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 이전 합의와 군공항 이전

광주 민간공항이 오는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무안공항이 지난 2007년 개항한지 11년만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발전 프로그램 중 하나인 광주 민간공항 활성화에 청신호를 받아들이고 있다. 광주 민간공항이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해 제주와 김포노선이 옮겨지면 무안공항 이용객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이 확정되면서 광주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공항 이전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광주시가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전남 무안·신안 등 4개군과 접촉해 나갔다. 하지만 4개 지자체 중 2곳은 접촉조차 할 수 없었으며,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인 무안군은 반발이 거세다. 국방부가 당초 적정성 검토를 벌인 뒤 해당 지자체장 면담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12월 중 예비 이전후보지 2곳 정도를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광주 향토기업 역사 뒤안길로

호남이 뿌리인 금호아시아그룹이 설립한 향토기업 금호타이어가

그룹에서 분리돼 홀로서기에 나섰다. 하지만 마침내 중국 타이어기업 더블스타에 매각됐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2위, 세계 14위의 종합타이어 기업이었지만 금호아시아그룹이 지난 2006년 계열사 등의 자금을 끌어 모아 국내 도급순위 1위의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다. 여기에 지난 2006~2008년 중국공장에 대규모 증설 투자를 했지만 현지 판매 부진 등으로 빛이 눈덩이처럼 늘어가면서 2009년에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계속해서 경영위기를 맞게 된다. 채권단은 부도위기에 내 놓린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으로 '중국 타이어기업 더블스타' 해외자본유치를 결정한다. 더블스타는 3년간 고용보장, 지분 45%(주당 5000원)에 해당하는 6463억원을 투자하고 금호타이어의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움켜쥐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6·13 지방선거 범죄 공소사료 만료일인 12월19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한 김모(49·여)씨에게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 믿은 윤 전 시장이 공천 등에서 도움받길 기대하고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 혼외자식으로 둔갑한 김 씨 자녀들의 취업을 알선·정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반면, 윤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 날인하지 않는 등 수사에 강력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역대 최장기간 폭염...인명·재산피해 속출

올해 광주·전남 지역은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입었다. 올해 6~8월 동안 광주·전남의 폭염 일수는 28일, 열대야 일수는 25.7일로 집계돼 역대 최장기간 폭염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38.5도를 7월27일과 8월15일에 2차례나 공식기록했다. 같은 기간동안 온열질환자

438명이 발생, 6명이 숨졌다. 닭·오리·돼지 등 가축 97만2328마리가 폐사해 잠정피해액만 28억여 원에 이르렀다. 물고기 등 양식어류 405만800마리도 폐사해 33억4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목포·여수·광양을 제외한 전남 19개 시·군에서는 농작물 426.3ha가 폭염에 말라죽었다.

◇교육계 잇따라 스콜미투 '민낯 드러낸 성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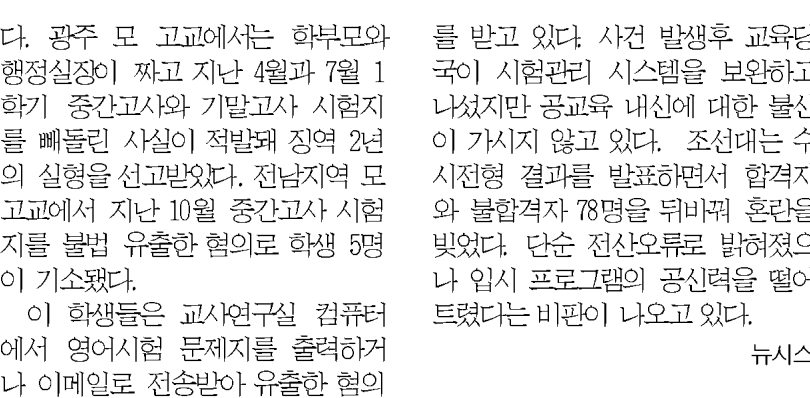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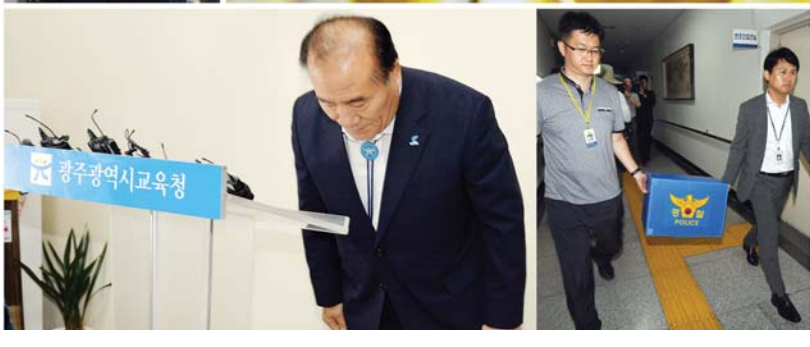
올해 문화계에서 촉발된 '비투운'이 광주·전남지역 학교로 확산되면서 현직 교장이 구속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 광주 모 고교 교장이 지난해와 올해 생활지도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고교 두 곳에서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교사 19명과 17명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았다. 광주지역 한 고교 기간제교사는 여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고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의 성적을 올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스콜미투'는 중학교는 물론 전남지역 학교에서도 잇따라 발생해 교육계에 민낯을 상인지 감수성 부족의 민낯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8일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집단 승소

대법원이 지난 10월30일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해 개인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있음을 재확인해 주목받았다. 지난달 29일에는 양극덕(87)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이어 광주에서 진행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근로정신대 위자료 청구권이 존재하고 청구권한점으로 소멸하지도 않았다는 판단이 재확인되면서 당시 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 또는 유족들이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된 셈이다.

◇연이은 고교 시험지 유출에 입사사고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 연이어 시험지 유출사건이 발생하면서 내신성적의 공신력이 추락했



뉴스시스

다. 광주 모 고교에서는 학부모와 행정실장이 짜고 지난 4월과 7월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남지역 모 고교에서 지난 10월 중간고사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학생 5명이 기소됐다.

이 학생들은 교사연구실 컴퓨터에서 영어시험 문제지를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받아 유출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후 교육당국이 시험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남지역 모 고교에서 지난 10월 중간고사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학생 5명이 기소됐다.

이 학생들은 교사연구실 컴퓨터에서 영어시험 문제지를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받아 유출한 혐의

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박윤규(1948. 11. 17.생, 2012. 5. 17. 사망, 최후주소 광주 북구 면암로 165번길 106(각화동))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2012. 8. 9. 광주가정법원 2012년 139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9. 7. 수리심판을 받았고, 2018. 12. 11. 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경정결정을 받았으므로, 재산상속한정승인에 따른 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12년 1395 상속한정승인 공고인: 노해자
광주 북구 면암로 165번길 106(각화동)
한정승인수리일: 2012. 9. 7.(상속재산목록경정결정일: 2018. 12. 11.)
공고기간: 2018. 12. 28. 부터 2019. 2. 28. 까지(2개월 이상)
신고 장소: 광주 동구 자산로 71-1(자산동) 법무사 조기혁 사무소
전화: 062-236-1255, 1257
2018. 12. 28.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기장 대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업진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062-603-1060 FAX: 062-603-1062
HP: 011-641-6152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